

여호수아(9) 손을 드는 순간

■ 본문

수 8:10-23

■ 시작 찬송가

386장(통 439장)

■ 헌금 찬송가

86장(통 86장)

▶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팔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 손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닮아 다른 이들을 돕는 손, 품어주는 손, 사랑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2018.09.16. 주일찬양예배 중)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처참한 실패를 딛고 일어나 그들이 놓쳤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와 같이 거대한 성을 마주했을 때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성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이성을 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보고 어려운 전쟁을 예상하였기에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여리고를 도는 것만으로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방심하고 맙니다. 그리고 굳게 붙잡았던 하나님의 오른손을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주한 성을 그들 나름대로 쳐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 손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높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은 낮추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벤전 5: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여리고를 만나든지 아이를 만나든지, 만만한 사람을 만나든지 힘센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 74:11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 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삼상 17:47 또 여호와와 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받기만 하다 보면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보다 얼굴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성 사람들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 옆에 또 하나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바로 벤엘입니다.

수 8:17 아이와 벤엘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벤엘과 아이는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벤엘 사람들은 아이성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곧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성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성이 멸망할 때 벤엘도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양쪽 손입니다.

이전에 만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타락하고 세속적인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한 여인은 여리고 사람들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 6:25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벤엘은 아이성 전투가 자기의 싸움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음으로 자신들까지 멸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이 지금은 잘 나가고 괜찮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손들이 멸망으로 이끄는 쇠사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도움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3)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을 때 전쟁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손을 들어서 전쟁을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든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은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입니다.

수 8:19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수 8:26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항복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고, 약함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항복의 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환란과 고난당한 자에게 우리의 손으로 베풀어줄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

아이성의 전투는 손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손의 전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기도의 손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감사하게도 승리로 맺어졌습니다. 우리도 손을 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선한 자들의 손과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한마디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겠습니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라합

여리고의 기생으로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유숙케 하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수색할 때 숨겨 보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함락 시, 그녀와 온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기생이었으나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의 선조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 1:5)

▶ 여호와 닮은

‘여호와와 나의 것발’이란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을 체험한 이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세운 제단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닮은 것입니다. (출17:15)